

중국의 개인연금 개혁과 금융권 대응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 ◆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개혁 정책을 발표, 기존의 상품 중심 시스템을 계좌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 범위 및 투자 가능 상품 유형을 확대
- ◆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고갈 우려로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로, 중국 가계의 현금 및 예금 자산 규모는 명목 GDP를 대폭 상회하는 등 개인연금 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풍부한 상황
- ◆ 이에 주요 중국계 은행들과 BlackRock, Goldman Sachs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중국의 개인연금 신규 시장 공략을 본격화

□ 중국 개인연금의 기본 틀과 제도를 정립하는 정책이 '22.4월부터 연이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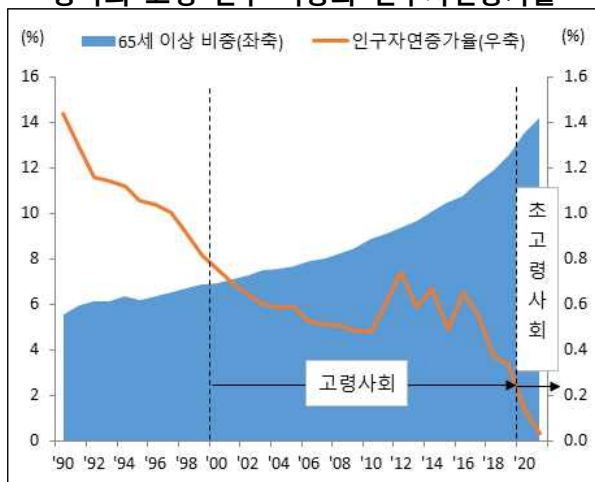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지난해 양회에서 개인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인연금* 전반에 관한 개혁 정책 발표
 - * 중국의 연금체계는 의무 가입 영역인 1층 기본양로보험(국민연금에 해당), 2층 기업연금(퇴직연금)·직업연금(특수직역연금)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3층 개인양로금(이하 개인연금)으로 구성
 - 국무원은 '22.4.21일 중국 최초로 개인연금 제도를 체계화한 <개인연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공개
 -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6.24일 <개인연금 투자 공모증권투자펀드업 관리 잠정 규정(의견수렴안)>,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인민은행은 7.29일 <특정 연금 저축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관련 금융업 제도화 및 新상품 도입
- 핵심 내용은 기존의 상품 중심 시스템을 계좌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 대상을 특정 연금보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
 - * 구체적인 세제 혜택 부여 방식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
 - '18년 세제적격 개인연금 제도* 등을 시범 도입했으나, 세제 혜택이 연금보험 상품에 국한되고 자금 운용처가 제한적이어서 활성화 효과 미흡
 - * 근로기간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퇴직 이후 연금소득에 낮은 소득세율 적용
 - 향후에는 연금계좌를 통해 은행자산관리상품, 저축예금, 상업연금보험, 공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 가능
 - 공적연금인 기본양로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 1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2,000위안(약 232만원)으로 책정

□ 급속한 고령화로 개인연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발전 여지도 큰 편

- 중국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 개혁이 시급해진 상황
 - 중국은 불과 21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
 - *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 중국은 '00년 고령화 사회, '21년 고령 사회에 진입. 프랑스와 미국,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데 각각 115년, 72년, 24년이 소요
 - 인구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도 '12년 0.74%에서 '21년 0.03%로 하락
 - 중국사회과학원은 '19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업노동자 기본양로보험 잔액이 '27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재정 보조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35년에 이르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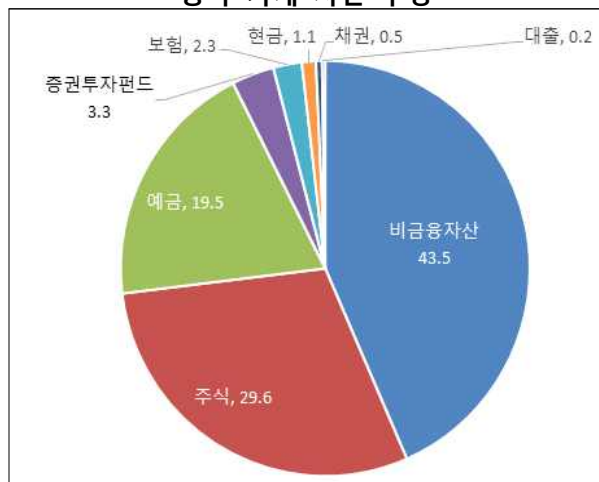
- 현재 개인연금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시장 발전 잠재력은 풍부한 상황
 - 개인연금 규모는 '20년 기준 약 650억위안(약 96.6억달러)으로, 중국 전체 연금의 0.5%에 불과*
 - * 싱예(兴业)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연금 비중은 '19년 기준 38%에 달함
 - 그러나 중국의 가계가 현금 및 예금 형태로 보유한 자산 규모는 명목 GDP인 14.7조 달러('20년 기준)를 대폭 상회하여, 개인연금 시장 자금 원천은 풍부
 - 가계 보유자산 중 부동산 위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19년 기준 43.5%(약 36조달러), 현금 및 은행예금 비중도 20.6%(약 17조달러)에 달함*
 - * 이는 중국 자본시장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부재 등에 기인. 귀타이쥘안(国泰君安)증권('22.5)은 개인 연금 활성화로 자산운용업에 신규 유입될 자금 규모를 연간 1,200억위안(177.3억달러)으로 추정

중국의 고령 인구 비중과 인구자연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중국 가계 자산 구성



주 : '19년 기준
 자료 : 중국 국가대차대조표 연구센터, CEIC

-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 손상 등은 개인연금 및 자본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
 - 부동산 판매액 증가율은 '22년 1~6월 전년동기대비 $\Delta 28.9\%$ 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부동산 경기지수 역시 기준치 100을 계속 하회
 - 부동산 업체의 자금난 등에 따른 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단이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
 -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7.16일 기준 중국 전역에서 270개 이상의 집단적인 모기지 상환 거부 사례 발생

□ 최근 중국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개인연금 신규 시장 공략 움직임 본격화

-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인식되는 중국계 은행들은 연금계좌 및 연금저축 시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 중신은행은 '22.5월 중국 최초로 개인연금 계좌 시범 은행 신청서 제출
 - 또한 4대 대형 국유은행은 지난 7월 연금저축 시범사업 주체로 선정되어, 오는 11월부터 향후 1년간 관련 상품(만기長, 원리금 보장형)을 출시할 예정
- BlackRock, Goldman Sachs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지난해부터 중국계 은행들과 조인트벤처(이하 JV)*를 설립하고 올해 들어 연금 투자상품 출시
 - * 중국은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18년부터 순차적으로 외자 지배 증권, 펀드, 웰스매니지먼트사 설립 허용
 - BlackRock과 건설은행의 JV인 BlackRock CCB 웰스매니지먼트사는 '22.4월 광저우와 청두시에서 10년 만기 연금 WMP* 상품 출시
 - * 이는 외국계 웰스매니지먼트사가 중국 최초로 출시한 연금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 Amundi, Schroders, Goldman Sachs도 이미 중국, 교통, 공상은행과의 JV 설립 및 개업 비준을 받고 중국의 개인연금 시장 공략 준비 중

중국의 현행(시범 사업) 개인연금계좌 투자 가능 상품

	전속상업연금보험	연금 WMP	연금공모펀드	연금저축
개시 시점	'21.6.1	'21.9.15	'22.6.24	'22.11.20
참여 기관	6개 생명보험사, 10개 연금전문보험사	10개 은행계, 1개 외국계 웰스매니지먼트사	상품제공 44개 펀드사 판매 43개 금융사	공상, 농업, 중국, 건설은행
시범사업 지역	21.6 : 저장, 닝보, 충칭 22.3 : 전국으로 확대	21.9 : 우한, 청두, 선전, 칭다오 22.3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6개 도시 추가	전국	허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칭다오
비고	新업체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연금수요 충족 목표	동 상품시장 전체 규모를 2,700억위안으로 제한(22.3)	최근 4개 분기 5천만위안 이상 타깃형 연금펀드 합계 885억위안(22.6)	은행별 한도액 100억위안. 만기 5~20년 선택ok

주 : 참여 기관 수는 '22.6월 기준
자료 : 시부(西部)증권